

[사회]

수완지구 신설학교 차질없이 들어선다

오는 2008년 9월부터 입주 예정인 광주 수완지구 내 학교 신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게 됐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양회 주 광주시 정책기획관과 박두상 광주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 교육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시에서 부담할 학교용지 부담금 280억원을 5년 이내에 시교육청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학교용지 부담금 280억

광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출확약공문'을 7일 시교육청에 보낼 계획이다.

광주시 5년내 내놓기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수완지구 학교용지 매입비의 절반인 280억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올해 추경을 통해 45억원만 지원하겠다고 했을 뿐 나머지 부담금에 대해서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구체적 지급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수완지구 택지개발자인 한국토지공사는 그동안 광주시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분납 등을 통해 5년 이내에 모두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면 8개 학교가 계획대로

로 지어질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에 부지를 제공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광주시가 학교용지 부담금 진출계획을 명확히 밝힘에 따라 수완지구 학교 신설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며 "조만간 토지공사와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완지구에는 2008년 9월 초등학교 1곳, 2009년 3월 초등학교 3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2곳 등 모두 8개 초·중·고교가 신설될 예정이다.

광주시에서 학교용지 부담금 전출 계획을 내놓지 않는 바람에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학교 신설 및 개교에 차질이 우려됐었다.

특히 지난 2006년부터 수완지구에서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광주시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놓지 않아 입주한 자녀의 교육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했었다.

/황태중기자 hwangtae@

호국정신·장한 삶 '갈채'

제34회 光日 보훈대상 시상...공상군경 등 5명 표창

어제 현충일 추념식

'제34회 광일보훈대상(光日報勳大賞)' 시상식이 6일 오전 광주 시민회관에서 열렸다.

호국영령들의 얼을 기리고 보훈가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주기 위해 광일보사가 제정한 '광일보훈대상' 시상식에는 박광태 광주시장·문병민 광주지방보훈청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장과 보훈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광주일보 김진영 사장은 이날 대간점 침투사건 발생으로 작전 중 부상을 입은 남편을 헌신적으로 보살펴 온 남유희(여·48)씨를 비롯 ▲김명근(공상군경 7급·62) ▲서유림(순직군

경 유족·71) ▲나창주(전북군경 유족·69) ▲김춘식(무공수훈자·80) 5명에게 각각 상패와 상금, 부상을 수여했다.

김 사장은 기념사에서 "호국 선열의 기록하고 높은 뜻을 확산시켜 나가고, 보훈가족들을 예우하고 돕는 일은 우리의 책무"라며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호국정신과 보훈정신을 일깨워 참다운 애국애족 정신을 드높일 수 있도록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사에 나선 박 사장은 "국가 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예우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도리이자 책무"라며 "생활 속에서 호국보훈 의식을 더욱 고취해 나가자"고 말했다.

문 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는 국가유공자의 고귀한 희생과 공헌의 바탕 위에 이룩된 것"이라며 "국가보훈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미래를 이어가는 국민통합 정신이며, 국가발전의 토대로 승화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52회 현충일'인 6일, 광주시는 오전 10시 남구 광주공원 현충탑 앞에서 상이군경회를 비롯한 보훈단체 회원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념식을 가졌다. 전남도도 같은 시각 목포시 부흥산 현충탑 앞에서 보훈단체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념식을 열고 호국 영령을 추모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일보사가 주최하고 광주지방보훈청이 후원하는 '제34회 광일보훈대상' 시상식이 각급 기관장과 보훈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일 오전 광주 시민회관에서 열렸다.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부족배기법' 잡으려 취객 방치 '부적절'

대법원, 경찰 관행 질책

취객을 부족하는 척하며 금품을 터는 '부족배기'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경찰관이 길가에 쓰러진 취객을 방치한 것은 위법한 합정수사는 아니더라도 부적절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6일 심야에 부족배기 수법으로 취객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

정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위법한 합정수사를 했다는 정씨 주장과 관련해 "길가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본 경찰관들로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긴급구조 요청이나 경찰관서에 보고 등 적당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 데도 피해자 상태를 이용해 범죄수사에 나아가 것은 지극히 부적절한 직무집행이지만 합정수사는 아니다"고 판결했다. /연협뉴스

오늘 수능 모의평가

수능 등급제가 첫 적용되는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한 모의평가가 7일 오전 8시45분부터 오후 6시15분까지 광주 59개 고교와 3개 학원 등 전국 2천104개 고교와 219개 학원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응시자는 광주지역 재학생 1만7천253명, 재수생 1천519명 등 전국적으로 재학생 53만8천480명, 재수생 7만3천460명 등 61만1천940명이다. 채점 결과는 29일 개별 통보한다. /황태중기자 hwangtae@

화순 전남대병원 등 전국 4곳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병원 지정

화순 전남대병원이 보건복지부의 '2007년도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시범병원으로 선정됐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단국대병원 ▲건국대병원 ▲한양대병원 등 4곳으로 호남권에서는 화순 전남대병원이 유일하다.

시범사업은 오는 25일부터 시작돼 1년간 재활의학과·정형외과 병동의 18 병상이 참여하고 12명의 간병인이 투입된다.

이번 사업시행으로 환자는 하루 1만5천원만 내면 간병인을 들

▲보호자 없는 병원=보호자나 개인 간병인 없이 병원에서 필요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병원에 적정 간병 인력을 배치, 보호자나 간병인이 환자 곁에 계속 있을 필요가 없는 병원을 말한다.

수 있게 돼 비용 부담이 3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독성 해파리 한반도로 재복상

이어도 인근서 '노무라입깃' 대량 발견

매년 여름 어민과 피서객을 괴롭혀 온 노무라입깃 해파리(Nemopilema nomurai)가 다시 복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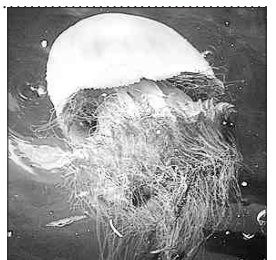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조사선에 동승, 필리핀 북부~대만 동부~동중국해 북부~제주도 인근 해역을 조사한 결과 8종의 해파리가 관측됐다고 6일 밝혔다.

노무라입깃 해파리는 북위 31.5~32.5도, 동경 124~126.15도 부근에서 2천78.3 개체(1천m)의 밀도를 보였다. 유럽 해파리는 북위 27.58~28.53도, 동경 124.28~125.31도 부근에서 13.4 개체(1천m)가 발견됐다.

이외의 무독성인 ▲보름달물 해파리 ▲평면 해파리 ▲투구빛 해파리 ▲오이빛 해파리 ▲네잎백합 해파리 ▲살과 등도 출현했다.

이어도 인근에서 독성 해파리가 대량으로 발견된 것은 수온 상승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이어도 주변 해역의 수온은 지난해 5월에 비해 섭씨 1~3도가량 높았다.

수산과학원 관계자는 "노무라입깃 해파리가 해류를 타고 약 3주 뒤 제주 북부와 남해안까지 북상하고 이어 서해와 남해 전 해역으로 확산될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노무라입깃 해파리=독성을 띠고 있으며 어린 물고기를 잡아먹기도 한다. 안전 성숙하는 9~10월에는 지름 1m·무게 200kg 이상까지 나간다. 해파리 수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거북·쥐치 등의 천적이 무분별한 어획으로 인해 줄어들었기 때문. 한 번에 1억 개 이상의 알을 낳는다. 해수욕장에서 쓰일 경우 식초나 알코올로 씻어낸 후 따뜻한 물로 마사지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전통 침·뜸 공개 강좌 공개강좌·설명회 6월 8일(금) 오후 2시

- 전문과정 연수 후 중국침구사 및 중국자격증 취득
- 의료개방 및 의료법 개정 대비 침구인 양성과정

주요과목: 체침(전통침), 뜸, 부항, 경혈, 경락, 두침, 미용침법, 비만침법, 피부관리, 약용식물관리, 한방기초 등

※본강의: 매주(금) 14:00~18:00 (총16주) ※광주분원: 지하철 증심사입구역 2번출구

236-3516 CH 중국문화원 www.wchina.co.kr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갈레오' 원적외선 필름난방이 책임집니다.

난방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 필름난방은 고효율의 복사열 난방방식이기 때문에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에 의한 복사열은 시온구 연결 원적외선을 방사하므로 점진효과가 있습니다. 필름난방에서 방출되는 강력한 원적외선 에너지는 우리 몸 내부를 먼저 따뜻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쉬운 난방공사. 반도체 도링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갈레오 필름난방은 당일 시공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쉬운 난방공사를 실현합니다.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 안심이세요. 타제품 열선대신 탄소면상발열체 사용으로 전자파제로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주)태양상사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TEL.(062)262-0101

Gallery RODEM 직수입 엔틱 전문매장 로템갤러리

각구의 **가격을 한층 높여 드립니다.**

●진열상품 30%~최고70% ●특별기획상품행사

소파, 식탁

찾아오시는 길: 1가목병원 - 백운동 - 남광주 - 미려이동행선

상상디자인 프라자 현대저층자 미려이동행선

대표전화: (062) 653-4022

몰류센터: 담양군 창평면 유천리 253-1